



이 학 명 | 한국생태환경연구원 원장  
 우리협회 건설분과부위원장  
 (koreafish@hotmail.com)

# 우리 하천 우리 물고기

연어 : 태생의 원초를 찾아오는 방랑객

학 명 : *Onchorhynchus keta*

지역 방언 : 연어, 연메기

분 류 : 연어과

자생 수역 : 우리나라의 동해안과 남해안 일부

주서식장소 : 맑은 계곡형 하천과 먼 바다

번 식 기 : 9-11월

크 기 : 80센티 내외

사람들에게 맛있는 요리감 생선으로 잘 알려진 연어는 차가운 물에서만 사는 냉수성 어종이다. 우리나라 동해안 쪽으로 흐르는 하천인 고성 명파천, 양양 남대천, 강릉 연곡천, 삼척 오십천, 영덕 오십천, 울진 왕피천 등이 주 산란처이다. 남해안으로는 작은 숫자만이 섬진강, 낙동강 수계에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에는 시민들이 합심하여 물을 맑게 만든 울산 태화강에도 연어가 나타나고 있으니 인간이 하천을 깨끗하게 하면 자연은 반드시 보답한다는 진리를 실감할 수가 있다.

연어는 담수 수역에서 부화하여 바다로 내려가 멀리 북태평양 등에서 3-5년간 자라다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산란을 하고 생을 마감하는 특이한 생태를 가진 물고기다. 일생 동안 수만 킬로미터가 넘는 대장정의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어린 치어로 먼 바다로 나갔던 것들이 성어가 되어나 뜻없이 단풍으로 물들 무렵인 10월경부터 자기가 태어난 모천으로 회귀한다. 강 하구를 거슬러 물이 맑은 상류, 자갈과 모래가 깔린 곳으로 때를 지어 올라온다. 고향 하천의 독특한 물의 성분과 냄새를 기억하여 회유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세계적으로 연어의 산란회귀 최남단 지역이 우리나라 남한 일대이다.

내수면연구소에서는 해마다 10-11월에 동해안 하천에 올라오는 연어를 포획하여 인공번식을 시키고 있다. 또한 10월이면 강원도 양양 남대천에서는 연어축제가 성대하게 열린다. 맨손으로 직접 연어를 잡아 볼 수 있고 잡은 것은 가져갈 수도 있다. 그 밖에 연어훈제, 연어 탁본 등 다채로운 행사가 남대천 변에서 벌어진다.

연어가 산란하고 치어기를 보낼 수 있는 하천은 하상에 반드시 모래, 자갈이 깔려 있어야 하며 보가 설치된 곳이면 이들이 회유할 수 있는 어도가 있어야 한다.

송고한 종족번식의 과업을 수행하러 수만리 물길을 마다하지 않는 연어의 아름다우면서도 애절한 삶을 여기 한 수의 시로 위로하려고 한다.

## 남대천 연어

상감 이학영 /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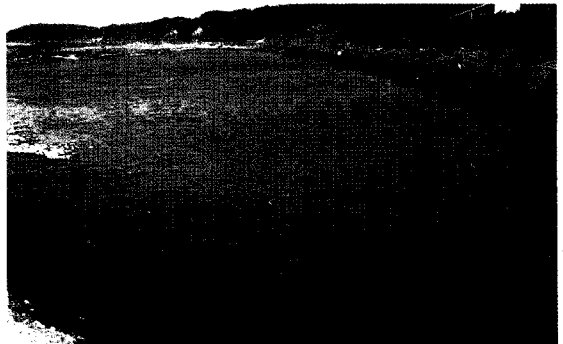
내 귀 거슬리는  
 연어일랑 쓰지 말라  
 살아 생애 단 한번  
 자연 섭리 어긴 적이 없나니  
 강을 거슬러 올라온 것이 아니라  
 아스라한 어린 체취 쫓아  
 내 누울 고향에 온 것 뿐  
 날 나온 어미처럼

고아 되는 새끼 질러놓고  
 어이 같거나  
 두 눈 부릅뜨고  
 아가리를 딱벌리고  
 이 한(恨) 끝으로  
 붉은 구슬 염주알 물에 굴리며  
 하늘로 거슬러 올라가는  
 남대천 연어 🐟



〈그림 1〉 연어

연어는 잘 알려진 식용어지만 그 자세한 생태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어릴 적 물 냄새를 찾아 가을 남대천을 올라온 연어는 아가리를 힘껏 벌리고 짹짹하고 나서 암수 모두 죽어 자신의 새끼를 결코 볼 수 없는 한 많은 물고기다.



〈그림 2〉 양양남대천

우리나라에서 연어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하천이다.



〈그림 3〉 연어 알

붉은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그림 4〉 필자와 연어

양양 남대천에 연어를 연구하러간 필자